

2017. 06. 19. ~ 2017. 06. 25. 주간

141
VOL

전남농업정보

기상전망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마늘 생육동향, 생산 및 가격전망
- 양파 생육동향, 생산 및 가격전망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니주시, 수출물류비 9억원 확보... 농식품 수출 촉진 기대
- 순천시, 농·특산물 수출 가파른 상승세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전남농기원, 어깨동무 컨설팅 큰 효과 기대된다
- 벼 잎 질소함량 분석으로 1석 2조 효과

정책동향

- 쌀 신·구곡 혼합, 원산지 위반, 꿈도 꾸지 마세요
- 전남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

사업신청 및 홍보

- 허수아비 만들기 경연 참가하세요
- 특특 튀고 참신한 농·특산품 포장디자인 찾아요



목차 및 요약

1. 주간 기상전망 5

- ▶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6월 30일~7월 2일 사이 비가 오겠으며,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9~22도, 최고기온: 25~2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6~12mm)보다 조금 많겠음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8

- ▶ 마늘 생육동향, 생산 및 가격전망
- ▶ 양파 생육동향, 생산 및 가격전망

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0

- ▶ 나주시, 수출물류비 9억원 확보... 농식품 수출 촉진 기대
- ▶ 순천시, 농·특산물 수출 가파른 상승세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2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14

- ▶ 매실을 화장품 원료 생산자원으로 활용
- ▶ 단감 과실품질 향상을 위한 엽면살포 효과
- ▶ 다래 재배지대별 주요 해충 발생현황 및 관리 요령

- ▶ 토마토 재배 온실 유형별 스마트팜 설치농가의 수익성 분석
- ▶ 전남농기원, 어깨동무 컨설팅 큰 효과 기대된다
- ▶ 벼 잎 질소함량 분석으로 1석 2조 효과
- ▶ 빵부터 커피까지, 가공하기 좋은 보리 『흑누리』
- ▶ 기준에 맞는 물·양분관리, 안정 생산의 첫걸음
- ▶ 아스파라거스 저장성 연장 기술 확립
- ▶ 천연 식물성 소재로 염증 잡는다
- ▶ 벼·옥수수 값아먹는 멸강나방 발생
- ▶ 짓 짜는 로봇 생산성 관련 빅데이터 분석

6. 정책 동향 31

- ▶ 쌀 신·구곡 혼합, 원산지 위반, 꿈도 꾸지 마세요
- ▶ 전남도, 원예산업종합 5개년 계획 수립 잔결음
- ▶ 전남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
- ▶ 축산차량에 식별 스티커 부착 지도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6

- ▶ 여수시,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농업 현장 순회
- ▶ 나주시, 농업정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 통해 농가 부담 덜다
- ▶ 고흥군, (주)베비에르와 손잡고 『고흥 유자빵』 선보인다
- ▶ 강진군, 아열대화 기후 맞춘 농업투자 결실
- ▶ 영암군, 영암 가축시장 신규 개설 23일 첫 개장
- ▶ 함평군, 단호박 본격 출하
- ▶ 장성군, 지역농산물로 『천연조미료 시장 공략』

8. 해외 농업정보 43

▶ 전남의 『다현녹두』 동남아 녹두 DNA를 개조한다

▶ 태국, 쌀 가격 급상승

▶ 해외 곡물시장 동향 '17. 6. 26.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밀 선물 가격은 옥수수 가격의 하락세에 동조하며 전일대비 하락세를 이어감

· 옥수수 : 옥수수 선물 가격은 미국 중서부 주요 곡창지대의 기상 개선으로 전일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감

· 대두 : 대두 선물 가격은 주요 생산지역의 기상 개선으로 장 막판 다시 하락하며 전일대비 보합세 마감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6

▶ 허수아비 만들기 경연 참가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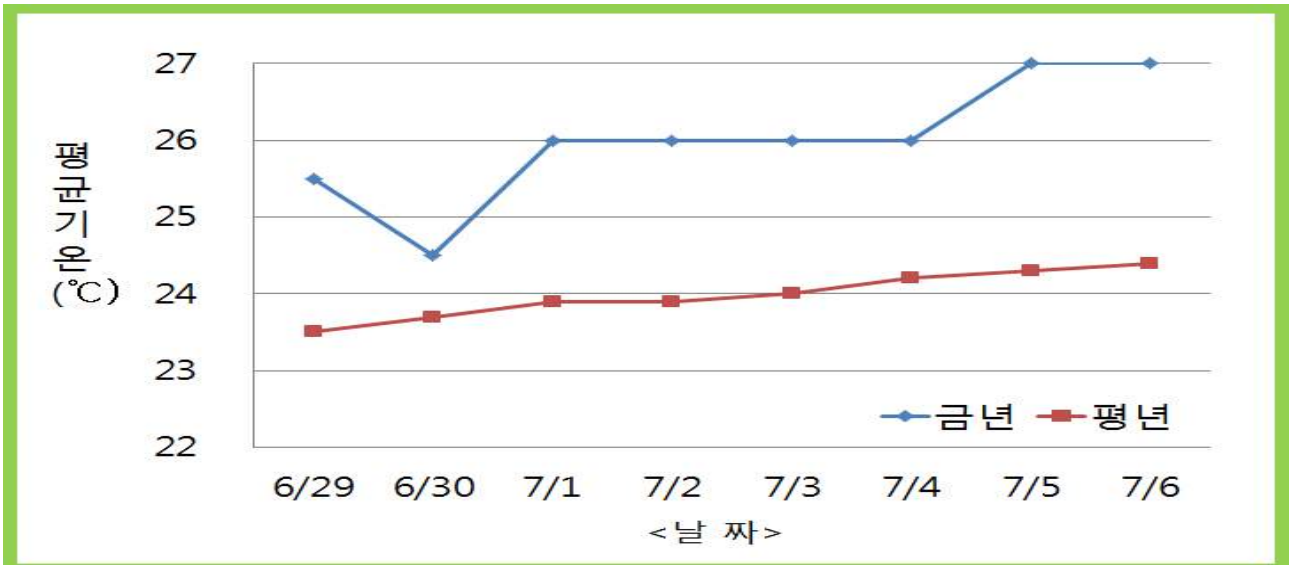
▶ 툭툭 튀고 참신한 농·특산품 포장디자인 찾아요

▶ 때이른 연일 폭염... 온열질환 주의하세요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6월 29일 ~ 7월 06일, 광주 기준)

- 평균기온 : 26.0℃ (평년대비 2.0℃ 높음)
- 최고기온 : 29.9℃ (평년대비 1.9℃ 높음)
- 최저기온 : 22.1℃ (평년대비 1.1℃ 높음)
- 강수량 : 10.9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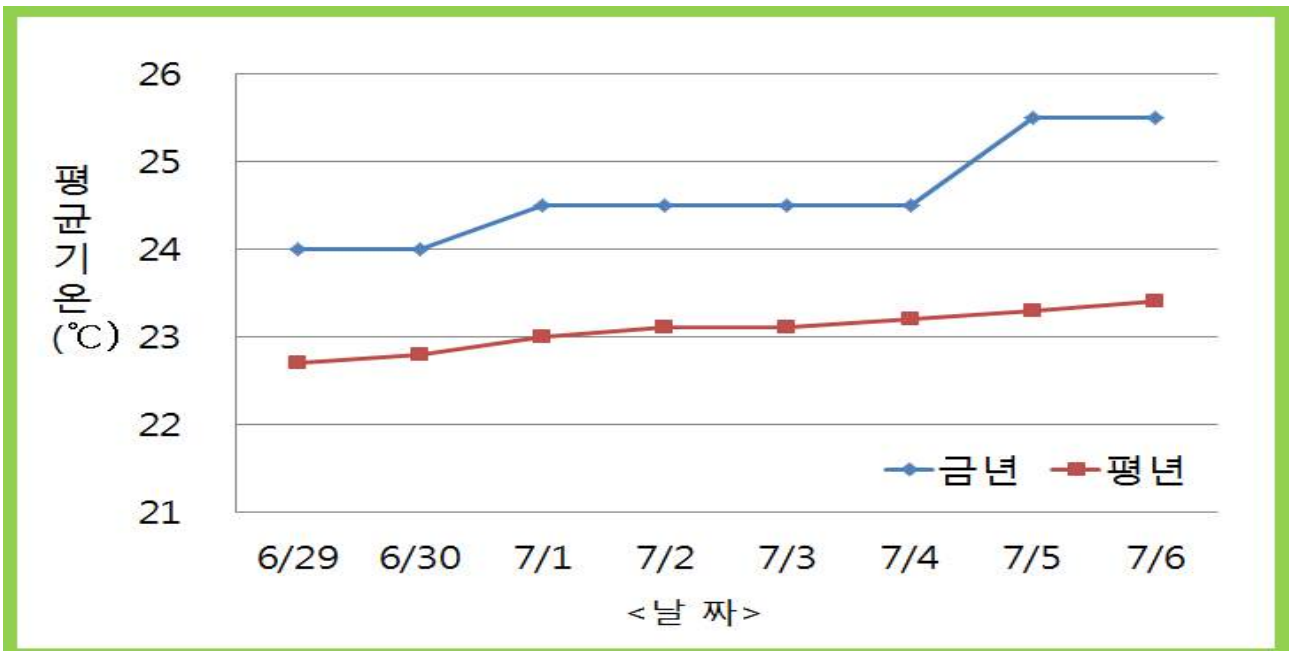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6.0	24.0	2.0	29.9	27.9	1.9	22.1	21.0	1.1	10.9
6. 29.(목)	25.5	23.5	2.0	30.0	27.6	2.4	21.0	20.4	0.6	10.5
6. 30.(금)	24.5	23.7	0.8	27.0	27.6	-0.6	22.0	20.7	1.3	9.6
7. 01.(토)	26.0	23.9	2.1	30.0	27.8	2.2	22.0	20.9	1.1	11.9
7. 02.(일)	26.0	23.9	2.1	30.0	27.7	2.3	22.0	21.1	0.9	13.0
7. 03.(월)	26.0	24.0	2.0	30.0	27.8	2.2	22.0	21.1	0.9	12.8
7. 04.(화)	26.0	24.2	1.8	30.0	28.0	2.0	22.0	21.3	0.7	10.4
7. 05.(수)	27.0	24.3	2.7	31.0	28.4	2.6	23.0	21.3	1.7	8.4
7. 06.(목)	27.0	24.4	2.6	31.0	28.6	2.4	23.0	21.3	1.7	10.5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6월 29일~7월 06일, 목포 기준)

- 평균기온 : 24.6℃ (평년대비 2.0℃ 높음)
- 최고기온 : 27.1℃ (평년대비 0.7℃ 높음)
- 최저기온 : 22.1℃ (평년대비 1.5℃ 높음)
- 강수량 : 8.3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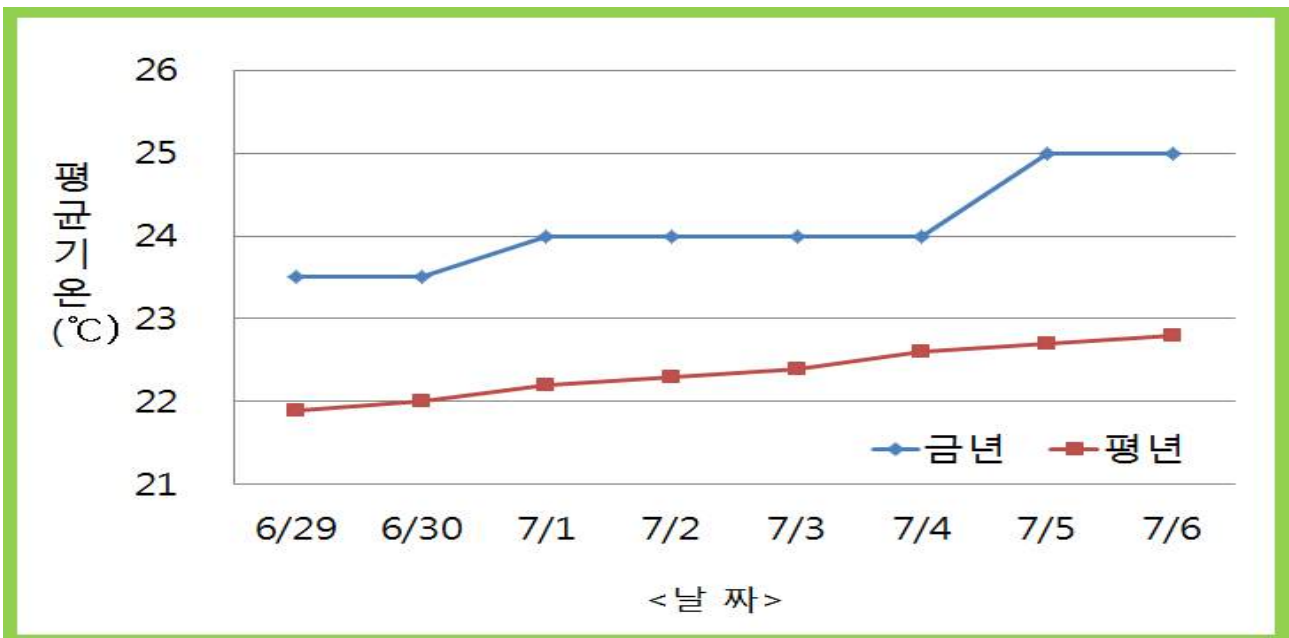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4.6	23.1	2.0	27.1	26.5	0.7	22.1	20.6	1.5	8.3
6. 29.(목)	24.0	22.7	5.0	27.0	26.2	0.8	21.0	20.0	1.0	9.2
6. 30.(금)	24.0	22.8	1.2	26.0	26.2	-0.2	22.0	20.3	1.7	8.5
7. 01.(토)	24.5	23.0	1.5	27.0	26.4	0.6	22.0	20.5	1.5	8.2
7. 02.(일)	24.5	23.1	1.4	27.0	26.3	0.7	22.0	20.7	1.3	9.0
7. 03.(월)	24.5	23.1	1.4	27.0	26.4	0.6	22.0	20.7	1.3	8.8
7. 04.(화)	24.5	23.2	1.3	27.0	26.5	0.5	22.0	20.8	1.2	7.4
7. 05.(수)	25.5	23.3	2.2	28.0	26.9	1.1	23.0	20.8	2.2	7.8
7. 06.(목)	25.5	23.4	2.1	28.0	26.9	1.1	23.0	20.9	2.1	7.2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6월 29일~7월 06일, 여수 기준)

- 평균기온 : 24.1℃ (평년대비 1.8℃ 높음)
- 최고기온 : 26.1℃ (평년대비 1.0℃ 높음)
- 최저기온 : 22.1℃ (평년대비 1.7℃ 높음)
- 강수량 : 9.7mm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4.1	22.4	1.8	26.1	25.1	1.0	22.1	20.4	1.7	9.7
6. 29.(목)	23.5	21.9	1.6	26.0	24.5	1.5	21.0	20.0	1.0	9.2
6. 30.(금)	23.5	22.0	1.5	25.0	24.5	0.5	22.0	20.1	1.9	9.5
7. 01.(토)	24.0	22.2	1.8	26.0	24.8	1.2	22.0	20.3	1.7	9.1
7. 02.(일)	24.0	22.3	1.7	26.0	25.0	1.0	22.0	20.4	1.6	10.1
7. 03.(월)	24.0	22.4	1.6	26.0	25.2	0.8	22.0	20.5	1.5	10.6
7. 04.(화)	24.0	22.6	1.4	26.0	25.4	0.6	22.0	20.6	1.4	9.3
7. 05.(수)	25.0	22.7	2.3	27.0	25.7	1.3	23.0	20.7	2.3	9.4
7. 06.(목)	25.0	22.8	2.2	27.0	25.7	1.3	23.0	20.8	2.2	10.0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마늘 생육동향, 생산 및 가격전망

□ 생육동향

- 구 크기 전년보다 작으나, 대부분 수확 마무리 되어 추가 피해 없을 듯
- 난지형 남도종(무안·신안·해남 등)은 구비대기 지속된 가뭄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크기가 감소하였으나, 5월 하순 수확이 시작 되어 가뭄 피해는 크지 않음

□ 생산전망 : 2017년산 마늘 생산량 전년보다 증가 전망

- 2017년산 마늘 생산량은 단수가 감소하였으나,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15% 내외 증가한 32만톤 내외로 추정
- 2017년 마늘의 10a당 수확량은 작황이 좋았던 전년대비 2~5% 감소한 1,257~1,298kg이 될 것으로 전망

□ 가격전망 : 6월 가격 전월대비 약보합세 전망

- 6월 중·하순 깎마늘 평균 도매가격은 상순(6,600원)대비 약보합세로 전망, 6월 평균 도매가격은 전월(6,750원)대비 약세로 전망
- 2017년산 국내산 마늘 생산량 증가로 가격 상승은 없을 전망

양파 생육동향, 생산 및 가격전망

□ 생육동향

- 전반적인 구 크기는 전년보다 작고, 포전별 편차 커
- 서부지역(무안·신안·해남 등)의 결주는 많지 않으나, 5월 중순부터 지속된 가뭄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크기가 전년 및 평년보다 작은 것으로 조사
- 중만생종의 본격 출하는 5월 하순부터 시작, 6월 15일 기준 수확률은 85% 내외

□ 생산전망 : 2017년산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 감소 전망

- 2017년산 중만생종양파의 10a당 수확량은 작황이 좋았던 전년 대비 3~8% 감소한 6,058~6,368kg이 될 것으로 전망
- 2017년산 중만생종양파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전년 대비 4~9% 감소한 101만 4천~106만 6천톤 전망

□ 가격전망 : 6월 가격 전월대비 강보합세 전망

- 6월 15일 이후 평균 도매가격은 상순(1,100원)대비 보합세로 전망, 6월 평균 도매가격은 전월(980원)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국내산 가격상승으로 수입산 양파의 국내도매시장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상승폭은 제한적일 전망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나주시, 수출물류비 9억원 확보... 농식품 수출 촉진 기대

- 나주시가 신선 농산물 및 지역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한 수출 물류비 지원예산 9억원을 확보했다.
- 지역 농·특산물 수출확대의 윤택유가 되고 있는 농산물 수출 물류비는 도비 30%와 시비 70%로 편성된 매칭사업으로, 매년 전남도가 부담하는 지원액이 부족해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 이번에 확보된 예산 9억원은 전라남도 수출물류비 전체 예산 32억원 중 27.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2개 시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내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의 물류비 경감을 통해 수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6년 나주시는 배·멜론·팽이버섯·새송이버섯·고추·김치·심비디움(절화, 분화) 등 10품목(5,436톤)에 168억원에 달하는 수출실적을 올렸으며, 생산농가 518호를 대상으로 7억 8천여 만원을 농협무역 등 수출업체 47개소에는 5억 2천여만원 등 총 13억원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했었다.
- 2017년 수출물류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채소류·화훼류·과실류·가공식품 등 53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 수출물류비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의 수출 선적분을 대상으로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출업체에서 제출한 수출면장과 수출실적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품목별 표준 물류비의 25%를 수출농가(15%)와 수출업체(10%)에 지원한다.

* 출처 : 나주시

■ 순천시, 농·특산물 수출 가파른 상승세

- 순천시는 2017년 농·특산물 수출 목표를 2016년 55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양한 수출정책을 펼쳐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5월까지 농·특산물(가공식품 포함) 수출 실적은 1,500톤에 35억 원으로, 2016년 900톤 18억원에 비해 두배 가량 증가했다. 올해 수출 목표인 70억원의 50%를 이미 달성했고, 상반기까지 60%인 42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미주시장과 동남아시아에서 안정적인 해외 판매망을 구축해 왔고, 프로모션을 통한 안테나숍 운영 등 해외시장 다변화로 신규시장을 꾸준히 개척해왔기 때문이다.
- 순천시 농·특산물 수출은 크게 가공식품과 신선농산물로 나뉘는데, 가공식품에는 김치류·젓갈류·반찬류·장류·차류·한과류·매실 가공품 등이 있고, 신선농산물에는 배·단감·참다래가 대표적이다.
- 수입농산물의 높은 과고를 넘어 청정도시 순천의 이미지를 살려 친환경 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하고자, 2016년 『순천시 농식품 가공수출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상·하반기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수출 활력화를 위한 시책에 기여하고 있다.
-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수출이 시작되는 과실류(배·단감·참다래) 300여톤까지 수출 길에 오르면 올해 수출목표인 70억원은 무난하게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 순천시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7. 06. 26.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6/26)	1주일전 (06/1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작물	쌀(일반계)	20kg	31,800	31,800	31,800	36,200	41,467	↓ 12.2	↓ 23.3
	콩(백태)	35kg	170,800	170,600	171,440	150,000	162,800	↑ 13.9	↑ 4.9
	고구마(밤)	10kg	29,600	28,800	26,440	29,550	33,223	↑ 0.2	↓ 10.9
	감자(수미)	20kg	29,000	29,400	48,480	20,600	22,493	↑ 40.8	↑ 28.9
채소류	배추(봄)	1kg	550	470	406	643	578	↓ 14.5	↓ 4.8
	양배추	10kg	3,700	3,600	4,220	6,925	6,148	↓ 46.6	↓ 39.8
	오이(다다기계통)	10kg	13,333	14,667	11,200	14,250	16,341	↓ 6.4	↓ 18.4
	애호박	8kg	11,000	13,400	10,960	13,700	12,273	↓ 19.7	↓ 10.4
	건고추(화건)	60kg	590,000	590,000	546,000	710,000	778,667	↓ 16.9	↓ 24.2
	풋고추	10kg	39,200	35,800	47,440	35,350	34,713	↑ 10.9	↑ 12.9
	마늘(깐마늘)	20kg	129,000	128,000	133,880	174,500	106,467	↓ 26.1	↑ 21.2
	양파	20kg	21,200	21,400	20,080	13,900	15,673	↑ 52.5	↑ 35.3
	당근	20kg	31,200	31,600	33,680	30,600	31,933	↑ 2.0	↓ 2.3
	대파	1kg	1,290	1,370	1,582	1,785	1,738	↓ 27.7	↓ 25.8
	파프리카	5kg	13,600	13,600	19,680	13,400	18,307	↑ 1.5	↓ 25.7
	참외	10kg	29,400	29,800	41,880	29,000	29,140	↑ 1.4	↑ 0.9
	토마토	10kg	17,600	18,000	22,920	13,550	14,923	↑ 29.9	↑ 17.9
	방울토마토	5kg	15,800	17,600	19,160	11,800	11,867	↑ 33.9	↑ 33.1
	수박	1개	16,600	14,600	17,480	14,050	13,603	↑ 18.1	↑ 22.0
	과일류	사과(후지)	10kg	39,000	37,800	39,840	37,500	50,818	↑ 4.0
배(신고)		15kg	51,600	47,800	45,040	46,000	51,947	↑ 12.2	↓ 0.7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6/26)	1주일전 (06/1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1,000	521,000	519,000	536,000	553,000	↓ 2.8	↓ 5.8
	느타리버섯	2kg	12,800	12,200	11,280	14,825	14,182	↓ 13.7	↓ 9.7
	새송이버섯	2kg	7,800	7,800	7,600	7,800	7,960	- 0.0	↓ 2.0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842	7,898	7,816	7,748	6,569	↑ 1.2	↑ 19.4
	돼지고기(삼겹살)	100g	2,332	2,267	2,221	2,325	2,125	↑ 0.3	↑ 9.7
	닭고기	1kg	5,527	5,615	5,939	5,724	5,832	↓ 3.4	↓ 5.2
	계란(특란)	30개	7,991	7,967	7,959	5,330	5,574	↑ 49.9	↑ 43.4
	우유	1리터	2,527	2,527	2,530	2,549	2,480	↓ 0.9	↑ 1.9

※ 가격변동폭이 30% 이내 , 31~70% , 70% 이상  으로 표시함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7. 06. 26.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365 천원	5,388 천원	5,972 천원	↓ 0.4	↓ 10.2
	거세	6,442 "	6,563 "	7,406 "	↓ 1.8	↓ 13.0
송아지 (6~7월)	암	3,121 "	3,140 "	3,255 "	↓ 0.6	↓ 4.1
	수	3,992 "	3,927 "	4,018 "	↑ 1.7	↓ 0.6
육우(600Kg)		2,523 "	2,602 "	3,410 "	↓ 3.0	↓ 26.0
젓소수송아지(7일령)		175 "	183 "	377 "	↓ 4.4	↓ 53.6
돼지(110kg)		471 "	491 "	461 "	↓ 4.1	↑ 2.2
육계(원/kg)		1,271 원	1,476 원	1,535 원	↓ 13.9	↓ 17.2
계란(원/특란10개)		2,093 "	2,086 "	984 "	↑ 0.3	↑ 112.7
오리(원/kg)		2,667 "	2,667 "	1,667 "	- 0.0	↑ 60.0

※ 생산비('16) : 한우(거세우) 5,976(송아지 가격 2,885), 육우 3,726천원, 돼지 267천원, 육계 1,244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974원/10개, 우유 760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축산정보센터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매실을 화장품 원료 생산자원으로 활용

□ 배경 및 필요성

- 전국 재배면적 확대로 매실의 과잉생산에 의한 경쟁력 저하
 - 생산량 : '00년 7,743(m/t) ⇒ '15년 41,245(m/t), 5.3배 증가
- 부가가치가 낮은 매실 원물 판매위주와 대량소비 및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다양한 원료 소재 및 응용 가공품 개발 미흡으로 매실 산업은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

□ 영농기술·정보 내용

- 매화 가지의 신초가 나오기 전에 꽃을 수확하여 화장품 원료자원으로 활용과 꽃숙음으로 인한 특등급 왕매실 생산으로 소득증대
 - 꽃수확은 손으로 홀터 순수한 꽃을 채취하며 오전부터 꽃을 따야 향기가 우수한 꽃을 딸 수 있음
- 꽃채취 후 향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10~50kg의 비닐봉지에 2중으로 담아 8℃ 미만의 저온고에 저장하였다가 기업체에 공급함
- 손으로 꽃을 홀튼 후 수확한 매실은 왕매실이 생산되어 특대로 판매(6천원/kg)

□ 기대 및 파급효과

- 친환경재배농가에서 꽃을 딴 후 재배 생산된 매실이 크고 튼실한 대과로 꽃과 매실 판매수익은 관행대비 왕매실 3.7배, 꽃은 0.5배 수익 증가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조경숙, 강정화, 지수현

■ 단감 과실품질 향상을 위한 엽면살포 효과

□ 배경 및 필요성

- 단감 재배면적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의 증가로 가격하락 및 농가소득 감소
- 단감 착색증진과 과실비대 향상 등 품질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엽면살포제 종류별 효과 검증 필요

□ 영농기술·정보 내용

- 엽면살포제 종류 : 아미노산 추출물(200배)+인산가리(0.5%)
- 엽면살포 시기 : 아미노산 추출물은 1차 생리적 낙과가 끝나는 6월 하순부터 10일 간격 살포, 인산가리는 8월 하순부터 7일 간격으로 5회 살포
- 엽면살포 방법 : 아미노산 추출물은 농약과 혼용이 가능하나 인산가리는 약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혼용 금지

□ 기대 및 파급효과

- 아미노산제와 인산가리 혼용처리가 무처리 대비 수량 12% 증수, 상품수량 37.4% 증가로 10a당 소득 443,200원 증가됨
- 경제성 분석 : 소득 증가액 443,200원/10a

손실적 요소(A)	이익적 요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되는 비용 : 359,6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엽면살포제 : 2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종×20,000원×5회 - 엽면살포 노력 : 2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10회×20,000원 - 수확, 선별, 포장노력 : 12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60,000원 - 포장박스 : 39,6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개×1,200원 ○ 계(A) : 359,6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되는 이익 : 802,8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증가 : 50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4kg×1,500원 - 상품비율 증가 : 301,8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05kg×37.4% = 1,006kg×300원 ○ 계(B) : 802,800원
○ 추정수익액(B-A) : 802,800 - 359,600 = 443,200원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김병삼, 조경철, 윤봉기

다래 재배지대별 주요 해충 발생현황 및 관리 요령

배경 및 필요성

- 다래는 재배가 시작되는 단계로 병해충에 대한 정보가 없음
- 산간지부터 해안지까지 재배지역이 각기 다르므로 재배지대별 문제해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영농기술·정보 내용

- 다래 재배지대별 주요 해충 발생현황
 - 평야지는 우점해충 녹응애를 비롯하여 16종이 조사되었음
 - 산간지는 해충 29종이 조사되었으며, 잎벌레류를 비롯하여 다양하였음
 - 해안지는 애매미충, 총채벌레류 우점종이었고, 18종이 조사되었음
- 주요 해충별 친환경 관리방법
 - 잎벌레류 : 4월 하순부터 10일 간격 유기농업자재 3회 살포
 - 깍지벌레류 : 5월 상순부터 10일 간격 유기농업자재 3회 살포
 - 녹응애, 애매미충 : 5월 하순부터 10일 간격 유기농업자재 2회 살포
 - ※ 유기농업자재 : 고삼 70%+ 계피 15% / 식물추출물 91%+ 목초액 7.5%

기대 및 파급효과

- 재배농가 교육 및 현장컨설팅으로 개발기술 조기 보급
- 재배지대별 문제해충에 대한 적절한 관리로 상품성 및 소득 향상



【평야지 : 녹응애】 【산간지 : 노랑가슴초록잎벌레】 【해안지 : 애매미】

재배지대별 우점해충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마경철, 최덕수, 김효정, 이진희

■ 토마토 재배 온실 유형별 스마트팜 설치농가의 수익성 분석

□ 배경 및 필요성

- 스마트팜을 도입하지 않은 농가에게 복합환경관리시스템으로 정밀한 환경관리로 수익성을 제시하여 도입 의사결정 자료 제공

□ 영농기술·정보 내용

-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ICT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팜을 도입한 농가의 설치면적은 평균 7,666m²(비닐온실 4,307, 유리온실 14,383)이고, 평균설치비용은 46,967,672원(비닐온실 24,584,431, 유리온실 100,182,328)이고 비닐온실 1,000평에 설치비용은 18,867,560원임
- 경영성과로는 온실관리 편리성 증대 96.7%, 노동력 절감 및 정보 기술 향상 93.3, 비용절감 83.4임
- 스마트팜 관련 시설 고장비율은 환경관리시설 13.3%, 제어장비 20%, 환경제어프로그램 33.3%이고, 농가별 연 평균 고장횟수는 환경관리시설 1.75회, 제어장비 3회, 환경제어프로그램 2.6회로 나타남
- 토마토 스마트팜 농가 수익성 : 수량 45% ↑, 소득 20 ↑, 경영비 74 ↑
 - 3.3m²당 수량(kg)은 94kg로 일반농가 65kg보다 45% 증
 - 10a당 소득은 15,382,921원으로 일반농가 12,789,913원보다 20% 증
 - 경영비는 39,117,763원으로 일반농가 22,434,467원보다 74% 증

□ 기대 및 파급효과

- 스마트팜을 도입하기를 희망한 농가의 의사결정 자료로 제공
- 스마트팜을 도입하여 최적의 환경관리로 수량증대 및 노동력 절감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김덕현, 손장환, 조동호, 박신

■ 전남농기원, 어깨동무 컨설팅 큰 효과 기대된다

- 전년 사과 어깨동무 컨설팅농가 소득 전남평균보다 17% 높아-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이 지난 21일 곡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재배기술, 병해충, 경영유통, 기술지원 등 전문가와 함께하는 어깨동무 컨설팅을 가졌다.
- 『어깨동무 컨설팅』은 2016년 전남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손장환 박사가 개발한 새로운 집단컨설팅 방법으로 동일한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경영기록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영진단과 경영개선 처방을 해주는 컨설팅이다.
- 사과 어깨동무 컨설팅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전남농업기술원이 2년 연속 어깨동무 컨설팅에 참여한 6농가의 성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 경영기록 기장점수는 88점으로 전년 83점에 비해 5점이 향상되었고, 10a당 소득은 2,858천원으로 전남평균 2,431천원보다 17.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금년에 처음 참여한 장성군 신준수 대표는 “데이터를 통해 타농가와 본인 농장의 경영수준을 비교하고 손쉽게 경영상의 문제점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어깨동무 컨설팅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 정밀한 경영분석을 위해 경영기록장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습관과 경영마인드를 갖추도록 노력 하겠다”고 하였다.
- 조동호 자원경영과장은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어깨동무 컨설팅』이 농가 경영기록을 근거로 실시하는 가장 과학적인 컨설팅 기법이다.”라며 “어깨동무 컨설팅 확산을 위해 경영기록장 기장농가를 확대하고 컨설팅 매뉴얼을 개발하고 시군 전문컨설턴트를 양성하여 2019년에는 전남도내 21개 시군에 보급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벼 잎 질소함량 분석으로 1석 2조 효과

- 질소비료 과다사용 방지, 고품질 쌀 생산 위해 잎 분석 교육 실시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6월 22일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 농가의 비료 적정사용 중간점검을 위한 잎(벼) 분석시기를 앞두고, 21개 시군 종합검정실 담당자와 분석요원을 대상으로 『잎 분석』 교육을 추진하였다.
- 『잎분석』은 벼 잎의 전체 질소함량을 측정하며, 분석결과에 따라 이삭거름 시용량을 결정하여 시비하도록 지도하고, 적정 범위를 초과(T-N 3.50% 이상)하는 필지는 수확기(10월)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정밀분석 후 적합여부를 판정받게 된다.
- 차성충 기술보급과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정밀분석과 적정시비 기술 지원을 강화하여 질소비료 과다사용 방지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단백질 함량이 낮은 밥맛 좋은 고품질 쌀 생산의 1석 2조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현재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 필지는 비료 적정사용 이행점검을 위해 수확기 토양검사와 이삭이 패기 전 30~40일(중만생종 기준)에 벼 잎을 채취하여 잎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빵부터 커피까지, 가공하기 좋은 보리 『흑누리』

- 가공 특성 우수한 색깔 보리 『흑누리』 산업화에 박차 -

- 식품의 영양성분을 꼼꼼히 살피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건강기능성분을 함유한 색깔 보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가공 특성이 우수한 검정 보리 『흑누리』를 개발해 가공제품 다양화와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흑누리』는 흑색을 띠는 색깔 보리 품종으로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건강기능성 보리로서 다양한 가공 제품에 활용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현재까지 자색보리(자수정찰·보석찰·보안찰), 청색보리(강호청), 흑색보리(흑나래·흑누리·흑광) 등의 색깔 보리 품종을 개발했다.
- 흑누리를 이용한 제빵 시험결과, 보급 품종인 『새쌀보리』에 비해 부피가 크고 아밀로스 함량이 높아 식감이 부드럽고 빵 만들기에 적합한 가공 특성 및 기호도를 나타냈다. 현재 흑누리를 활용한 빵·커피·국수 등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 및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 흑누리를 이용한 보리빵은 2016년 4월부터 『ㄱ제과』 1,273개 매장에서 흑보리 양금빵·찰떡브레드 등의 시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장흥·고창 지역에서 계약 재배되고 있다.
- 유럽의 경우, 카페인이 적은 보리커피가 임산부나 카페인에 예민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보리커피(59.9% 보리 함유)의 카페인 함량은 5.95mg/g으로 일반커피(15.5)의 절반 수준이다.

- 보리커피 품종 선발을 위한 제조 시험결과, 흑누리를 섞은 커피는 커피 내림시간이 가장 짧고, 맛과 색감 등이 우수했다. 현재 『L업체』는 통상 실시를 통해 계약재배하고 있으며, 국산 보리커피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
- 흑누리를 포함한 색깔보리 제품은 국산 보리로는 처음으로 2016년 24톤(6만달러)을 미국에 수출했으며, 올해 예상 수출 물량은 약 40톤 가량이다. 2016년 국내에서는 온라인판매 등을 통해 약 1,000톤 가량 유통됐으며, 올해는 오프라인 판매 등을 추진해 색깔 보리 유통량은 1,500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농촌진흥청 박기도 작물기초기반과장은 “가공 적성이 좋은 색깔 보리 『흑누리』 개발 및 산업화 연계를 통해 보리를 사용한 가공 식품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리 시장을 활성화하면서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기준에 맞는 물·양분관리, 안정 생산의 첫걸음

- 시설재배 작물 생육단계별 관수량과 관비·양분 공급량 기준 제공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시설재배 풋고추·애호박·수박 3작물에 대해 재배방식에 따른 질소와 칼리의 주(週)단위 관수량과 웃거름 관비 공급량 기준을 설정했다.
- 시설하우스에서 생산하는 채소작물은 겨울철 난방과 양분관리 방법에 따라 재배작형과 재배기간이 다양하다.
- 일반적으로 시설작물의 양분은 재배 중에 관비(물+양분) 형태로 공급되고 있으나, 생육단계별 적정 공급기준이 없어 농가에서는 물을 공급할 때 임의로 비료(양분)를 섞어서 주고 있는 실정이다.
- 시설재배 작물은 재배방식과 생육단계에 따라 물과 양분의 요구량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작물의 안정생산이 가능한 점적 관수량을 시군별 정식시기별 주 단위로 산정했다. 점적관수는 미량으로 뿌리근처에만 물을 공급함으로써 고랑관수 대비 60~75% 물을 절약할 수 있어 가뭄 시 유용한 관수방법이다.
- 작물별 양분 요구량은 축성·반축성 재배방식의 경우에 생육초기·생육성기·생육후기로 구분하고, 보통 재배방식은 생육초기·생육성기로 나눈다.
- 작물별 시비처방 기준(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10)에 따르면 밑거름과 웃거름의 비율은 풋고추(6:4), 애호박(5:5), 수박(4:6)이다.

- 풋고추·애호박·수박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작물별로 정식 후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필요한 질소(요소)와 칼리(염화가리)의 단위면적(991.7m²)당 필요량의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제공 자료는 흙토람(soil.rda.go.kr) 『작물영양진단』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재배 방식별로 생육단계에 따른 적정 관비공급량을 준수할 경우, 작물별로 20~50%의 비료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 다만 질소원으로 요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과 혼합 시 가스가 발생하므로 공급 3~4일 전에 미리 만들었다가 공급해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작물의 가스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질소와 칼리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료에 함유된 질소와 칼리의 양을 확인한 후 사용하면 비료의 과다 또는 과소 공급을 피할 수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아스파라거스 저장성 연장 기술 확립

- 당 처리법으로 수확 후 18일까지 저장, 기능성분도 유지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아스파라거스 수확 후 저장기간을 늘리고 기능성분을 유지할 수 있는 당(sucrose) 처리법을 제시했다.
- 아스파라거스는 혈액순환, 간 해독작용 성분, 비타민·엽산 등 고기능성분이 많이 함유된 채소로 주로 샐러드로 먹는다. 어린순을 수확하므로 대사 작용이 활발해 저장기간이 짧다.
- 재배면적은 2001년 1.5ha에서 2015년 70ha로 증가했으며 제주도·강원도·경북지역 등 전국적으로 재배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일본 수출을 시도 중에 있기도 하다.
- 아스파라거스 저장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수확한 직후 예비냉장과 동시에 당(sucrose) 3~5% 용액에 20시간 담근 후 저온(2℃)에 저장하면 된다.
- 이렇게 처리할 경우 18일까지 우수한 품질로 상품성이 유지됐다. 무처리구가 12일 정도인데 반해 6일 정도 더 저장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당 처리에 의해 아스파라거스의 저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세포벽 구성성분인 가용성 펙틴의 함량의 증가가 억제되고 불용성 펙틴의 감소가 천천히 유도됐기 때문이다.
- 가용성 펙틴은 물에 녹는 펙틴, 불용성은 녹지 않는 펙틴이다. 일반적으로 과실이 성숙해지면 불용성 펙틴이 가용성 펙틴으로 분해돼 세포들이 덜 단단해지면서 조직이 물러지게 된다.

- 또한 당 처리에 의해 아스파라거스의 안토시아닌과 루틴, 아미노산 함량이 증진됐다.
- 당 처리 5% 용액에 담긴 아스파라거스는 무처리구에 비해 저온 저장 20일째에 안토시아닌 성분인 시아니딘 3-오-루틴사이드(cyanidin 3-o-rutinside)와 루틴 함량이 1.2배 증가했다.
- 아스파라거스의 총 아미노산 함량도 당 처리구가 무처리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중 히스티딘(Histidine), 발린(Valine), 가바(GABA)가 급격히 증가했다.
- 이러한 연구결과 당 처리로 인해 아스파라거스 수확 후 저장 기간 동안에도 유용한 성분이 변화 없고 또 유통기간 연장도 가능함에 따라 앞으로 아스파라거스의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술은 특허출원 됐으며, 국외 유명저널인 바이오케미컬 앤 바이오피지컬 리서치 커뮤니케이션즈(Biochemical and Biophysical Research Communications (BBRC,IF 2.4))에 게재돼 대외 학술적 성과로도 인정받았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천연 식물성 소재로 염증 잡는다

- 약초 벌개미취 · 사위질빵 · 끈끈이대나물... 항염증 효과 밝혀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서울대 이상국 교수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약용작물인 벌개미취, 사위질빵, 끈끈이대나물이 항염증에 효과가 있다고 세포실험으로 밝혀냈다.
- 이 3가지 약초는 679여점의 시료를 이용해 항염 효능을 분석한 결과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실험은 생쥐의 대식세포주(RAW264.7)를 이용해 염증반응에 증가하는 산화질소(NO: Nitric Oxide)의 생성이 벌개미취, 사위질빵, 끈끈이대나물 추출물에 의해 얼마나 억제되는 지를 관찰했다.
- 가장 대표적인 염증 유발효소인 iNOS(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를 활성화시켜 산화질소(NO)가 생성됨으로써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
- 벌개미취 추출물(20 μ g/ml 농도)은 대조군에 비해 산화질소 생성이 62.5% 감소, 사위질빵 추출물(20 μ g/ml 농도)은 70% 감소, 끈끈이대나물 추출물(20 μ g/ml 농도)은 72.5%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연구결과는 특허출원 됐으며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산업화할 계획이다.
- 벌개미취, 사위질빵, 끈끈이대나물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가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이들 약초는 다양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기존 항염제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 식물성 소재로 활용 가능할 전망이다.

- 또한 항염증제를 필요로 하는 비염, 기관지염, 간염, 천식, 궤양성 대장염,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기능성 소재로도 활용 가능하다.
 - 더불어, 항염·항자극 활성을 이용하여 약학조성물 및 건강기능 식품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다.
 - 화장품으로의 산업화를 위해 첩포시험을 통한 인체피부 일차자극 시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됐다.
 - 벌개미취, 사위질빵, 끈끈이대나물은 자생식물로 3가지 모두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다.
 - 벌개미취 뿌리는 항암, 항균, 항진균 활성 등이 있다고 보고돼 있으나 벌개미취 특히 지상부가 항염 효과를 가진다는 연구는 없었다.
 - 사위질빵은 세포독성, 접촉피부염, 항균 등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돼 있다. 끈끈이대나물 뿌리는 강장, 해열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 * 출처 : 농촌진흥청



【벌개미취】



【사위질빵】



【끈끈이대나물】

■ 벼·옥수수 갇아먹는 멸강나방 발생

- 10mm 미만 멸강나방 애벌레 발견 즉시 적용약제로 방제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경기·충남·전북·강원 등 전국에서 멸강나방 애벌레가 확인됨에 따라 농작물 재배지를 미리 살펴 보고 발견 즉시 방제 해줄 것을 당부했다.
- 멸강나방이 우리나라에 날아와 채집된 최대발생일(5월 28~30일)을 기준으로 6월 중순부터 7월 상순경에 멸강나방 피해가 예상되므로 각 농가에서는 논둑이나 밭둑, 목초지 등을 자주 관찰해 멸강나방 애벌레 발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멸강나방 애벌레는 벼·옥수수·조·수수 등 벼과식물과 콩과식물의 잎을 갇아먹다가 점차 줄기, 이삭까지 먹어치우기 때문에 발생한지 수일 안에 작물이 앙상해진다.
- 멸강나방은 우리나라에서 월동하지 못하고 중국 등 해외에서 날아오는 해충이다. 올해는 5월 27일부터 6월 13일 사이에 온 것으로 추정되며 발생량은 예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 농촌진흥청 정준용 재해대응과장은 “멸강나방 애벌레가 4령(15mm) 이상으로 커지면 작물을 갇아먹는 속도가 매우 빨라져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지므로 농경지 주변을 수시로 살펴 발견 즉시 적용약제로 방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멸강나방 성충모습】



【옥수수 가해 유충】

■ 『젓 짜는 로봇』 생산성 관련 빅데이터 분석

- 750마리 10,751자료 분석... 젓 짜는 횟수 조정해야 수익↑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자동으로 젓을 짜주는 『로봇착유기』의 빅데이터(거대자료)를 분석한 결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젓 짜는(착유) 횟수를 조절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로봇착유기는 레이저로 소 젓꼭지 위치를 파악해 자동으로 젓을 짜고 세척해 주는 기기다. 2006년 국내 첫 도입 이후 78농장에 120여 대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 일손을 줄일 수 있고 목장 시스템화로 체계적인 소 관리와 농가 경영을 할 수 있지만, 젓소의 잦은 착유실 방문, 착유 거부, 이용 방법의 부재로 관리 기술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농촌진흥청은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로봇착유기를 보유하고 있는 7농가 750마리, 10,751개의 착유 횟수별 산유량(젓양)을 비교·분석했다.
- 일반적으로 젓 짜는 횟수가 많을수록 산유량이 많을 것으로 예측하지만, 무리(축군) 중 1일 4.5회 젓을 짠 소의 유량이 40.57kg로 가장 높았다.
- 이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젓을 짠 무리의 1마리 평균(31.33kg)보다 약 9kg 많은 수치다. 젓 짜는 횟수가 5회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산유량이 전반적으로 주는 경향을 보였다.

- 따라서, 로봇착유기 프로그램에 개체별 최대 착유 횟수를 4회로 제한해 자주 드나드는 개체는 출입 횟수를 줄이고, 출입 빈도가 낮은 개체의 출입 횟수는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무리 전체의 유량 증가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로봇착유기의 효율적인 이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리기술을 수립·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로봇착유기의 젖 짜는 횟수가 젖소의 경제수명 연장과 유질(우유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낙농과 김태일 농업연구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로봇착유기의 이용 효율을 개선하는 한편, 로봇착유기 이용농가의 유량을 높일 수 있는 관리기술을 개발해 보급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로봇 착유기】

6. 정책 동향

◆ 쌀 신·구곡 혼합, 원산지 위반, 품도 꾸지 마세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쌀 가공업체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5월 29일부터 6월 16일까지 단경기 쌀 부정유통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14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된 14개소는 양곡표시사항을 미표시한 9개소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5개 업체이다.
 - * 양곡 미표시 : 5만원~2백만원 이하, 원산지 미표시 : 농·축산물(5만원~1천만원 이하)
- 이번 단속은 시중에 유통되는 쌀 중에 국내산과 외국산, 신곡과 구곡 혼합이 의심되는 저가미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 * 시중가격/20kg : 국내산 27~28천원, 중국산 28천원, 미국산 28~29천원
-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3주간의 특별단속기간 중 1주간은 지방에 근무하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등 69여명을 서울지역에 투입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 수입쌀 혼합이 의심되는 96개 제품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DNA분석 중이며, 국산에 수입쌀 혼합 판정 시에는 추가 조사를 통해 증거확보 후 형사처리 할 예정이다.
- 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5. 7.부터 국내산과 외국산, 신곡과 구곡 혼합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

- 국내산 수입산, 신·구곡 간 혼합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하였다.
 -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 거짓표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농관원 관계자는 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가미 등 양곡 품질표시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구입한 쌀의 생산연도, 도정연월일, 원산지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5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 신고 시 부정유통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5~200만원 지급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전남도, 원예산업종합 5개년계획 수립 전격음

- 2022년까지 통합마케팅 취급액 3천 790억원으로 34% 확대 전망 -

- 전라남도는 원예분야 생산·유통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원예산업종합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6월 20일 개최했다.
- 원예산업종합계획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과수산업발전계획, 산지유통종합계획, 주산지계획 3개 종합계획을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시·도가 동일하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책임 맡은 최문식 지역농업네트워크 호남 본부장은 전라남도 원예산업의 생산과 유통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전략과제로 공선출하조직 확대를 통한 농가조직 강화와 ICT 융·복합을 통한 생산기반 확충, 도와 시군을 연계한 통합마케팅 추진, 산지유통시설의 공동 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 또한 공선출하조직을 현재 216개에서 2022년까지 265개로 확대하고, 농가 참여형 재배기술 매뉴얼 개발을 통해 생산과 유통의 조화를 이룬다면, 2016년 현재 2천 823억원인 도단위 통합마케팅 취급액이 2022년까지 3천 790억원으로, 967억원(34%)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 서은수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감·사과·토마토·딸기·양파·고구마 등 11개 품목을 도 전략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원예작물 통합마케팅에 맞는 브랜드 개발을 통해 파급효과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또한 2018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전남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

- 안정적 축산업 영위 위해 2018년 3월까지 인허가 마무리 당부 -

- 전라남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하도록 생산자 단체, 축협 등 유관기관은 물론 시군 인허가부서 행정력을 총동원해 강력 추진한다고 6월 21일 밝혔다.
- 무허가 축산농가가 이때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축사 폐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 전남지역 무허가 축사는 약 6천여호로, 축산업 허가등록 1만 9천호의 31%에 달한다. 지금까지 적법화 실적은 403호로 적법화 대상 6천 364호의 6.3%이며, 이는 전국 평균 4.4%보다는 높은 편이다.
- 그동안 전라남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농가교육 1만 1천 여명, 현수막 게시 215매, 언론 홍보 103회, 문자 발송 4만건 등의 활동을 펼쳤다.
- 또한 농가 편의를 위해 시군 인허가부서에 전문 상담 인력 48명을 배치해 농가 상담을 하고, 시군 건축사협회와 MOU를 체결해 설계비를 감면받도록 하고 있다.
- 전라남도는 또 적법화의 원활한 추진과 축산농가의 편의를 위해 개발행위 이행 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및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 앞으로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를 위해 『농장별 1대1 담당 공무원』 405명을 지정해 측량 및 설계사무소 연결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축산환경건축 등 인허가부서 담당 공무원이 한 곳에서 근무해 인허가를 원스톱 처리하도록 매주 수요일 『민원종합상담의 날』 을 운영할 계획이다. * 출처 : 전라남도

◆ 축산차량에 식별 스티커 부착 지도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차량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국 49천여 대의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식별 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이를 차량에 부착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하여 운행토록 함으로써 국가동물 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17. 6월 현재 49,238대 등록)로
- 현재 축산차량 소유자는 시군에 축산차량 등록 후 차량무선인식 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고 등록마크를 발급받아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고 있으나, 등록마크의 크기가 작아(지름 8cm) 외부에서 육안으로 축산차량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차량 전·후·측면 표시 의무화를 『AI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 4월)에 포함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이렇게 법률 개정 이전이지만 조기에 시행키로 한 것은 금번 AI에 대응해 확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축산차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축산차량 소유자들에게 관할 지자체 등록, GPS장착(정상작동)과 아울러 식별 스티커는 차량 앞면 보조석 유리창 내부에 부착하는 등 축산차량등록제 이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여수시,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농업 현장 순회

- 작목별 전문지도사 벼·고추 등 재배기술 전수 -

-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기술교육을 위해 농업 현장으로 직접 찾아간다.
- 시는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지역 농촌마을 92곳을 찾아 농업인 1,800여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에서는 작목별 전문지도사가 농업인에게 벼·고추·콩 등 주요 농작물의 생육단계별 기술을 전수한다.
- 전문지도사들은 병해충이 발생한 작물을 직접 보여주며 진단과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등 농업인 눈높이에 맞춘 생동감 있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또 병해충 방제를 위한 실천사항이 담긴 교재도 배부한다. 교재는 농업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진과 그림 위주로 구성됐다.
-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영농현장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영농에서 중요한 시기에 실시하는 교육인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출처 : 여수시

■ 나주시, 농업정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 통해 농가 부담 덜다

- 농업인 최대 600만원, 농업법인은 1천 2백만원 지원 혜택 -

- 나주시가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 개선을 위해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사업에 나선다.
- 이자 차액 지원은 농업인(농업법인)이 농림축산식품부자금인 농업정책자금을 대출했을 시, 발생하는 2~3%의 대출 이자 가운데 최대 1~2%에 대한 이자를 나주시와 전라남도가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은 1%의 이자만 부담하는 사업이다.
- 이로써 농업인이 1억원을 대출했을 경우, 연간 200만원에서 최대 3년간 600만원의 이자부담이 줄고, 농업법인은 2억원 대출 시 연간 400만원, 최대 3년간 1천 200만원의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지원 대상은 농업종합자금의 경우, △원예특작분야 시설 및 개보수 자금, △농산물 가공·유통 및 운전자금, △축산분야 등이며, 농어촌 구조개선자금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등이다. 또한, 산림사업종합자금은 △전문임업인 육성, △단기산림 소득지원, △묘목 생산 등이다.
- 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농업정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연중 대출기관인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 및 지역농협과 나주시산림조합을 방문해 사전심사를 받고 대출을 실행한 후 나주시 농업정책자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출처 : 나주시

■ 고흥군, (주)베비에르와 손잡고 『고흥 유자빵』 선보인다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

- 고흥군은 6월 20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도가 주관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을 통해 전남도와 (주)베비에르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이날 MOU는 『농업과 기업이 협력해 상생하자』는 상생협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4개 시군과 5개 기업이 모여 각 시군의 농·특산물을 원료로 한 신제품(메뉴) 개발과 출시, 판매, 공동 마케팅 등에 대해 협력하고자 마련됐다.
- 고흥군은 광주전남권역 대표빵집인 (주)베비에르와 손잡고 지역 대표 특산물인 『유자』를 활용한 베이커리, 음료 등 신제품의 개발·판매로 고흥 유자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소비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이에 앞서 군은 4월 27일 (주)베비에르 대표 등 관계자와 사전 간담회를 갖고 고흥 『유자』와 베비에르 『빵』 콜라보레이션의 상품기획에서부터 홍보마케팅까지 전 과정에 걸쳐 상호 협의해 왔다.
- 군과 (주)베비에르는 신제품 개발과 동시에 베비에르 직영점 (10개소) 및 주요관광지에서 테스트 마케팅을 실시하여 상품화 가능성과 소비자 선호도를 파악한 후 『고흥 유자빵』을 출시·판매할 계획이다.

* 출처 : 고흥군

■ 강진군, 아열대화 기후 맞춘 농업투자 결실

- 강진군이 점점 따뜻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작목전환을 모색한 10년간의 투자가 결실을 맺고 있다.
- 군은 아스파라거스를 시작으로 여주·콜라비 등 당시에는 생소한 작물을 도입했다. 최근엔 체리·애플망고·만감류(레드향) 등의 과수를 지역 적응 시험을 거쳐 농가에 정착시켜 소득으로 연결되고 있다. 아스파라거스와 여주는 2016년 강진 10대 농식품으로 선정해 도약 중에 있다. 망고·레드향·체리 등 유망 과종이 그 후발 주자로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타 지역에 비해 조기 도입한 아스파라거스는 4ha의 면적에서 매년 80톤을 생산중이다. 피로회복, 숙취해소 등 기능성과 함께 고급 식자재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면서 안정적인 틈새 소득 작물로 자리매김했다. 수도권 의 식자재 유통회사와 매년 계약 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최근 모종 갱신과 면적확대를 꾀하고 있다.
- 아스파라거스의 뒤를 이어 도입한 여주는 2016년 8.9ha 40농가가 생산에 참여했다. 여주는 『대한민국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해 강진군이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주 주산지로 자리매김했다. 천연인슐린이라 불리는 여주는 특수성분인 케라틴과 공액리놀산 등이 함유되어 있어 당뇨, 성인병 개선에 기능성을 인정받아 건강식품 소비시장에서 지속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다.
- 최근 전국 재배 면적이 급증해 원물 가격 하락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년 전 부터 이에 대비해 농가별 가공시설 지원, 가공 업체 육성, 위탁 판매 등을 통해 난관을 헤쳐 나가고 있다.

* 출처 : 강진군

■ 영암군, 영암 가축시장 신규 개설 23일 첫 개장

- 전자경매시스템 갖춰... 우수 혈통한우 거래 활성화 기대 -

- 전라남도는 영암에 최신 전자경매시스템을 갖춘 가축시장을 신축해 22일 준공식을 개최, 23일 첫 개장했다.
- 영암축협은 1990년까지 영암 독천가축시장을 운영하다 폐쇄한 후, 2006년 10월부터 나주 영산포가축시장을 임차해 매월 1회씩 운영해 왔다.
- 영암지역은 전남에서 세 번째로 많은 약 4만 마리의 한우를 기르고 있지만, 그동안 지역 내 우량 송아지 등을 거래할 가축시장이 없어 지역민의 불편이 컸다.
-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영암 도포면에 국비 9억 5천만원을 포함해 총 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자경매시스템 등 현대화시설을 갖춘 영암축협 가축시장을 개설했다.
- 영암축협 가축시장은 1만 5천 238㎡ 부지에 건축면적이 1천 797.42㎡이며, 1일 356마리를 전자경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차량 소독시설, 123대의 주차공간도 있다. 영암군 거점 소독시설 역할도 수행한다. 매월 6회 개장하고, 23일에는 혈통 등록 송아지를 경매한다.
- 전남지역에는 모두 15곳의 가축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12곳에서 전자경매시스템을 이용해 한우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거래하고 있다.

* 출처 : 전라남도

■ 함평군, 단호박 본격 출하

- 43억원 농가소득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 최고의 맛과 품질을 인정받는 함평 단호박이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다. 6월 22일 함평군에 따르면, 단호박 재배규모는 270농가 205ha로 올해만 4,300여톤이 생산될 전망이다. 농가소득으로 환산하면 43억원에 이른다.
- 단호박은 항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으며,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해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다.
- 특히 함평 단호박은 타 지역 제품보다 뛰어난 품질과 높은 당도를 자랑한다. 기후, 강수량, 무상일수가 적절한 요건을 갖춘 덕분이다. 일반적으로 7월쯤부터 출하를 시작하는데 반해 함평은 6월부터 출하한다는 것도 특징이다.
-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하우스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조기재배를 권장해 왔다.

* 출처 : 함평군



■ 장성군, 지역농산물로 『천연조미료 시장 공략』

- 장성군이 천연조미료 시장을 농업을 살리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고 조미료 가공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장성군이 2016년부터 향토산업인 『천연조미료 융복합 산업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장성의 특산품인 삼채, 조미채소인 대파·양파 등으로 개발한 천연조미료 제품화하는 인프라를 갖추는 사업이다.
- 이에 그치지 않고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천연조미료 상품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성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산업을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 중이다.
- 『천연조미료 융복합 산업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장성천연조미료 사업단은 현재 삼채를 활용한 간장·오일, 대파피클 등 천연조미료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제품 중 간장 『삼채담은 간장』과 오일 『삼채품은 오일』은 4월 서울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에 입점하는 성과를 거뒀다.
- 삼채는 단맛·매운맛·쓴맛 세 가지 맛이 난다는 뜻에서 삼채로 불리며, 부추에 긴 뿌리가 달린 것처럼 생겨 뿌리부추라고도 부른다. 식이유황·사포닌 등 건강기능성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 장성군은 천연조미료 제품 및 가공식품 개발과 온·오프라인 판매처 확보, 수출판로 개척, 유통시설 확충 및 전문판매장 건립을 통해 천연조미료 산업을 생산·가공·유통·관광에 이르는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대와 함께 장성의 대표 6차산업으로 육성해 갈 예정이다.
* 출처 : 장성군

8. 해외 농업정보

◆ 전남의 『다현녹두』 동남아 녹두 DNA를 개조한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전남도에서 자체 개발한 다현 녹두를 서울대학교 연구팀(교수 이석하)과 공동으로 동남아시아 기후에 적합한 녹두 품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14년부터 3년 동안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시험 재배한 다현 녹두와 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캄보디아 등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을 인공 교배하여 다현녹두에 들어있는 병해 저항성과 동시 등숙성 유전인자(DNA)를 동남아시아 품종으로 도입시켰다.
- 내병성과 동시 등숙성이 좋은 다수의 계통을 캄보디아 캄푹주와 캄푹스프주, 베트남 닌투안성 지역에서 시험 재배해 수량이 많으면서 콤바인 수확이 가능한 4계통을 선발하였다.
- 또한 선발한 4계통을 대상으로 콤바인 수확의 실용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규모 생산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고 한다.
- 녹두는 국내 생산량이 2천여 톤에 불과하여 수요량의 75% 정도인 6천여 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 따라서 국내 식품원료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우리 기후에 맞는 녹두 품종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재배하여 도입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김동관 연구관은 “이러한 연구 결과가 실용화되면 국내 녹두의 수급안정은 물론 해외에 진출해 있는 농산업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태국, 쌀 가격 급상승

- 전 세계적으로 잦은 자연재해로 인해 쌀 재고가 급격히 줄어들어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쌀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전 세계 쌀 수출국 2위인 태국도 예외없이 쌀 공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태국 정부는 약 290만톤의 쌀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중 270만톤은 산업 및 가축사료용으로 쓰이는 하급 품질의 부식성 곡물이며, 이는 2014년 이전 1,887만톤에 비해 현저히 감소된 수치임
- 2014년 태국 정부는 1,390만톤의 쌀을 경매를 통해 1,300억바트에 매각하였으나, 이번년도 경매에는 총 166만톤의 쌀을 겨우 매각함
- 대외무역부 사무총장, Duangporn Rodphaya는 올해 11월 주요 작물이 수확될 때까지 쌀 재고는 없을 것이며, 이에 많은 다른 국가들이 태국에서 쌀을 구매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함
- 태국 쌀 가격은 지난 두 달 동안 증가하였는데, 5월 톤당 632달러에서 현재 715달러로 한 달 만에 약 13.1%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베트남 쌀 역시 475달러에서 495달러로 약 4.2% 상승함
-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의 쌀 가격상승으로 인한 쌀 가공식품 등 소비재의 가격 인상 예상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7. 6. 26.(시카고 선물거래소)

□ 전일에 이어 다시 하락한 밀·옥수수 선물 가격

○ 밀 선물시장 상황(▼0.3%)

- 밀 선물 가격은 옥수수 가격의 하락세에 동조하며 전일대비 하락세를 이어감. 최근 전 세계 생산량 감소에 대한 우려로 1년 이래 가장 높은 가격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하락하였음

○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1.4%)

- 옥수수 선물 가격은 미국 중서부 주요 곡창지대의 기상 개선으로 전일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감

○ 대두 선물시장 상황(-)

- 대두 선물 가격은 주요 생산지역의 기상 개선으로 장 막판 다시 하락하며 전일대비 보합세 마감. 중서부 지역의 기상여건 개선으로 작물 전망도 점차 개선되고 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허수아비 만들기 경연 참가하세요

- 전남농업박물관, 8월 26일까지 60여 가족 선착순 -

- 전라남도농업박물관(관장 김우성)이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단위 참가자를 대상으로 6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박물관 야외전시장 및 농업테마공원에서 『허수아비 만들기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대회 참가비는 가족당 5천원이다. 초등학생을 동반한 60여 가족 240명을 선착순 접수한다. 신청은 8월 26일까지 농업박물관 누리집 및 전화로 하면 된다.
- 대회 참가가족에게는 허수아비 만들기에 필요한 각종 도구와, 벚짚, 새끼줄 등을 지급한다. 꾸밈용 옷과 기타 장식품 등은 참가 가족이 직접 준비해야 한다. 가족의 화합과 창의성을 발휘해 개성있는 허수아비를 만들면 된다.
- 작품은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박물관 대회장에서 직접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대회 마지막 날인 8월 26일 농업테마공원에서 오전 10시부터 경연대회와 출품작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 심사는 작품명의 적정성, 창의성, 예술성 등을 고려해 이뤄진다. 대상 1, 금상 1, 은상 2, 동상 3명 등 총 7명의 입상자를 선정해 전라남도지사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 문의 : 전라남도농업박물관(<http://www.jam.go.kr>), 061-462-2796~9

* 출처 : 전라남도

◆ 특특 튀고 참신한 농·특산품 포장디자인 찾아요

- 제3회 농촌마을 농·특산품 포장디자인 공모전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농·특산품 포장디자인 우수사례 발굴과 6차산업화 지원을 위해 『제3회 농촌마을 농·특산품 포장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 주제는 『소비자 신뢰로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포장디자인』이며, 응모 대상은 농촌마을에서 농업의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농업인, 농업 관련법인, 마을공동체 등)들이다.
- 응모 기준은 상품정보를 바르고, 명확히 전달하고, 환경을 생각하며, 농가의 경영철학을 차별성 있게 표현함으로써 진정성이 돋보이는 포장디자인 사례로 기능적으로나 시각적으로 독창적이며, 믿음을 주는 농·특산품 포장디자인이다.
- 6월 19일부터 공모전 안내를 하고, 작품 응모신청은 8월 7일부터 18일까지이다.
- 응모한 포장디자인 작품은 8월 말 정보성, 친환경성, 자율성, 창의성, 상품성, 효과성 등 서면과 실물 심사 후 9월 4일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응모 시 제출서류는 참가신청서, 농·특산품 포장디자인 설명서, 포장재 실물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업과학원 누리집(<http://www.naas.go.kr/>)이나 농촌환경자원과(전화 063-238-2663)로 문의하면 된다.
-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입선 등 총 11개 작품에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공모전 수상작과 포장디자인 분야 우수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농·특산품 포장디자인 우수기획전』을 연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때 이른 연일 폭염... 온열질환 주의하세요

- 전남도, 감시체계 대폭 강화 및 건강수칙 홍보 -

- 전라남도가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폭염에 따른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열질환자 감시체계 운영 강화 및 건강수칙 홍보에 적극 나섰다.
- 전라남도는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날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어린이 및 야외 작업 근로자는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 건강수칙을 지키고 열사병·탈진 등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폭염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인 12~17시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이나 논·밭작업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평소보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 한낮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활동이나 작업 시 시원한 장소에서 자주 휴식하고, 가볍고 헐렁한 옷을 입고 평소보다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 전라남도는 폭염에 따른 건강 피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해 도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5월부터 도 및 시군에서 온열질환 감시 대응체제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 또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48곳과 보건소 22개소가 합동으로 열사병·일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현황을 매일 확인하고 신속한 온열환자 관리를 위해 24시간 비상 업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전라남도는 폭염 발령 시 농촌지역 마을방송 등을 통해 주민들이 한낮의 무더위 시간대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야외 활동은 적극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출처 : 전라남도



주간

전남농업정보 141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93 Fax. 061-335-4199